

1교시부터 6교시까지

권동우 글 이혜승 그림

[교실 속 그림책220] 1교시부터 6교시까지 나의 하루

2019년 2월 1일 초판발행 2019-00221

| 지은이 | 권동우

| 지 도 | 최혜선

| 펴낸곳 | 교육미술관 통로

| 홈페이지 | www.museum-tongro.com

| ISBN | 979-11-89671-66-2 75810 : 비매품

| 총서명 | 교실 속 그림책

| 세트번호 | 979-11-957446-5-7 (세트) 75810

이 책의 저작권은 지은이와 교육미술관 통로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작가의 말

저는 혼자 있을 때 여러 가지 재미있는 생각을 합니다. 종이를 접어서 뭔가를 만드는 것도 좋아 하죠. 이 책을 쓰게 된 이유는 나의 학교생활 이야기를 담아보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독자 여러분이 이 책을 어떻게 읽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아마도 엄청나게 유익하지는 않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학교 생활을 해보신 분이라면 한번쯤 공감하면서 재미있게 읽지 않을까 생각 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많은 독자들이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그림책쓰기는 상상의 나라입니다. 제 머릿속에만 있던 것을 종이에 쓰면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종이에 담긴 이야기는 이렇게 사람들에게로 흘러가지요. 저의 이야기가 어떤 독자들에게 가 닿을지 기대됩니다. 즐겁게 읽어주세요.

머 리 말

이 그림책은 [교실 속 그림책]이라는 총서명으로 교육미술관 통로가 펼쳐내는 221번째 이야기이다. 교육미술관 통로의 창작 그림책은 공교육의 학교 현장에서 현직교사와 어린이작가가 함께 만들어 낸 살아있는 교육 자료로서 독자적인 가치를 지니며 경이로운 감동을 준다.

동아리 활동으로 진행했던 '교실 속 그림책 창작 프로젝트'가 2018년에는 학교 전체로 그 영역을 확장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글 없는 그림책의 글 작가가 되어주세요' 라는 제목의 프로젝트였다. 졸업한 선배 어린이작가의 그림책에서 그림만 남기고 글은 모조리 제거했다. 그림만 남은 그림책을 리플렛으로 제작하여 전교의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렇게 부탁했다.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대로 자유롭게 이야기를 써주세요."

아이들은 같은 그림을 가지고도 저마다의 독특한 이야기를 만들어 나갔다. 원작인 교실 속 그림책 『영킨 실』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이야기들이 무궁무진하게 펼쳐졌다. 선배의 그림과 후배 어린이작가의 글이 만나자 또 하나의 의미 있는 2차 창작물이 탄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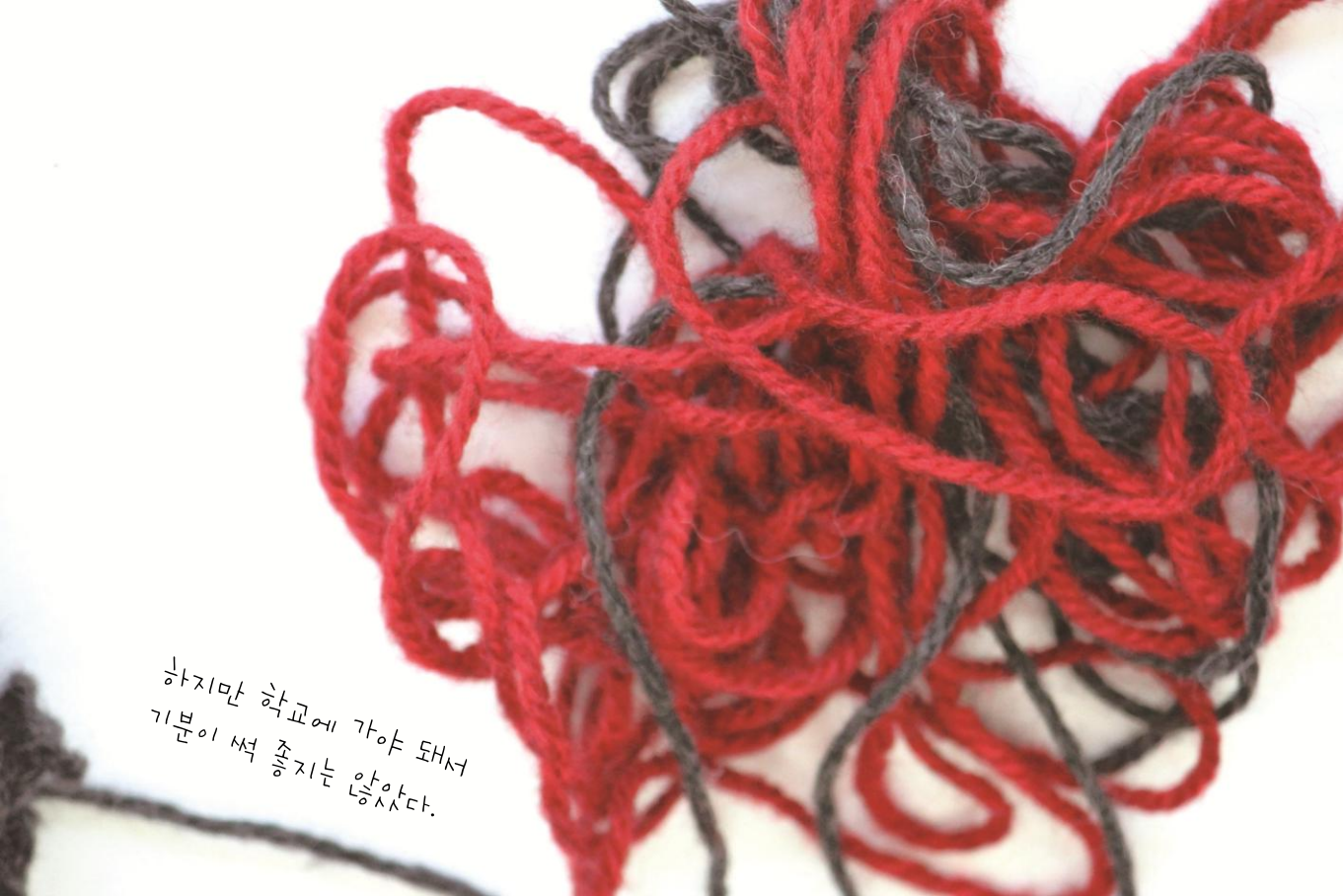
수업을 진행하시던 6학년 1반 최혜선 선생님께서는 아이들이 써 내려간 흔적을 사려 깊은 눈으로 살펴보셨다. 아이가 슬그머니 그림책 속에 털어놓은 이야기를 소중히 여겨주셨다. 선생님께서 그림책 문치를 품에 안고 교실 문을 두드려주신 덕분에 이 작품들과 만날 수 있었다. 선생님과 함께 아이들의 작품을 한 권 한 권 살펴보면서 아이들이 펼쳐놓은 창작의 세계에 감격했다.

중학생이 된 어린이작가 이해승에게도 후배 작가들이 쓴 그림책을 전해주었다. 후배들의 작품을 살펴보던 혜승이가 이렇게 말했다. “와 선생님, 동생들이 제 그림을 보고 이런 이야기를 쓸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이거 저 혼자 보기는 너무 아까운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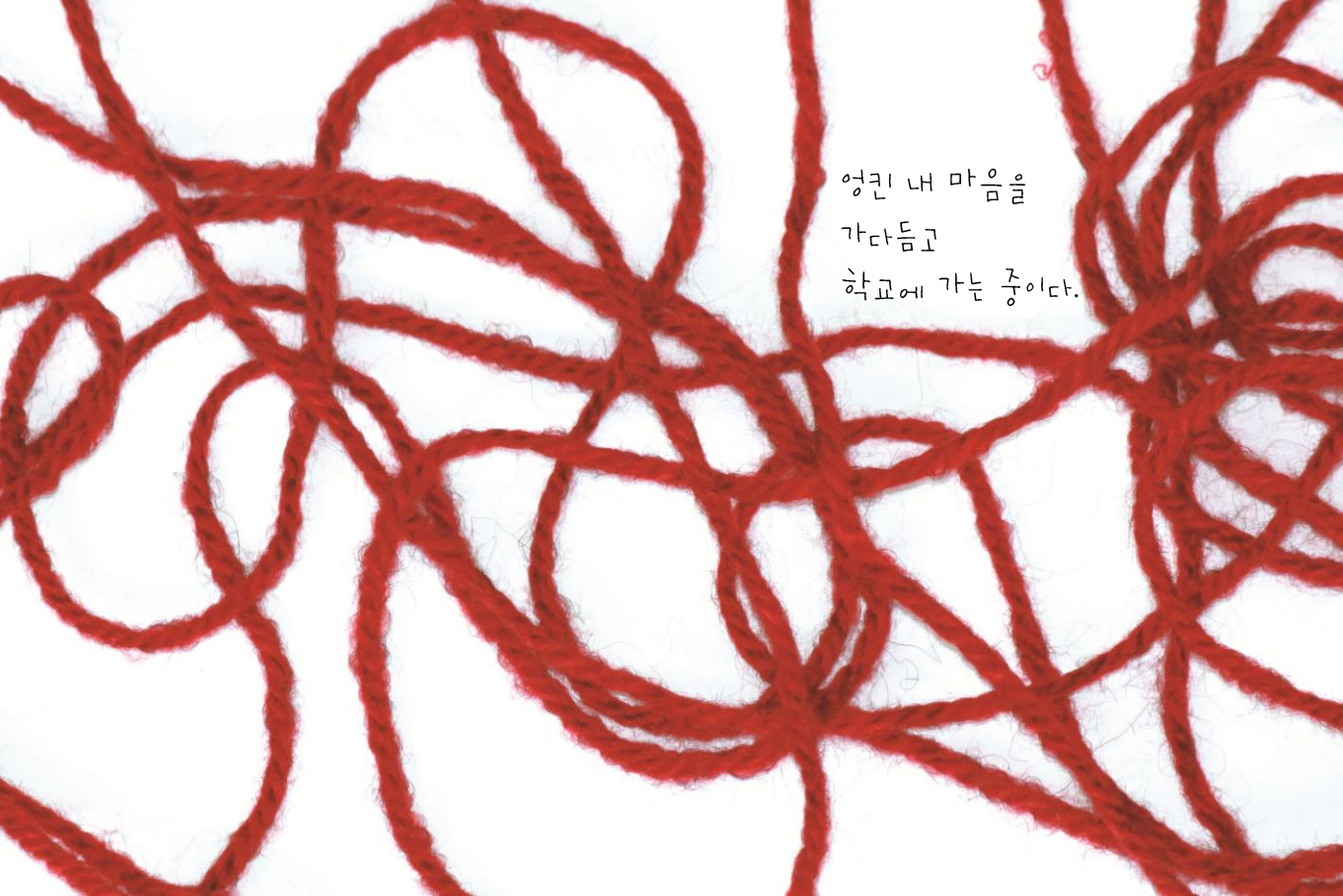
그렇게 혜승이의 그림과 동우의 글이 만나서 교실 속 그림책 『1교시부터 6교시까지』가 탄생했다. 어린이작가 권동우는 하루의 일상을 빨간 털실에 무심한 듯 담백하게 담아냈다. 1교시부터 6교시까지 학교에서의 일상을 솔직하게 풀어내어 또래 친구 독자들에게 압도적인 인기를 끌었다. 지금부터 어린이작가 권동우가 펼쳐내는 학교 생활 이야기 속으로 폭 빠져보시라. 학교를 다녀본 독자라면 누구든지 격렬하게 공감하면서 유쾌한 웃음을 터뜨릴 것이다.

아침이 되고 난 일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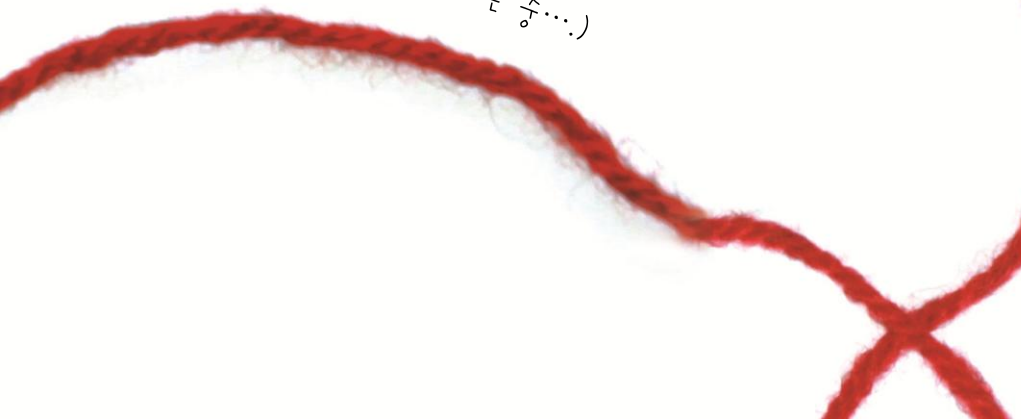


하지만 학교에 가야 돼서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아요.



영킨 내 마음을
가다듬고
학교에 가는 중이다.

(학교 가는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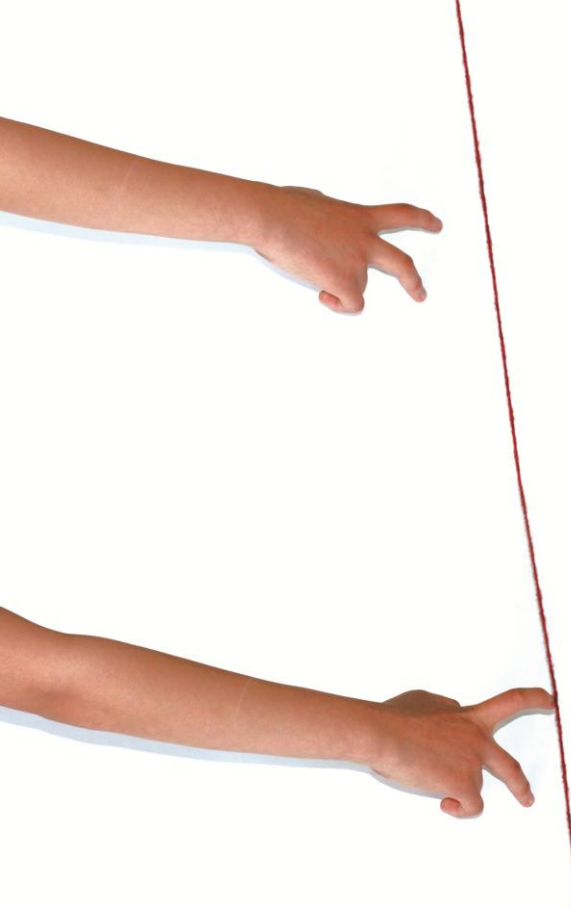
아침 달리기를 하는 동안 내 마음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1 교시가 시작됐다.
"아, 공부하기 귀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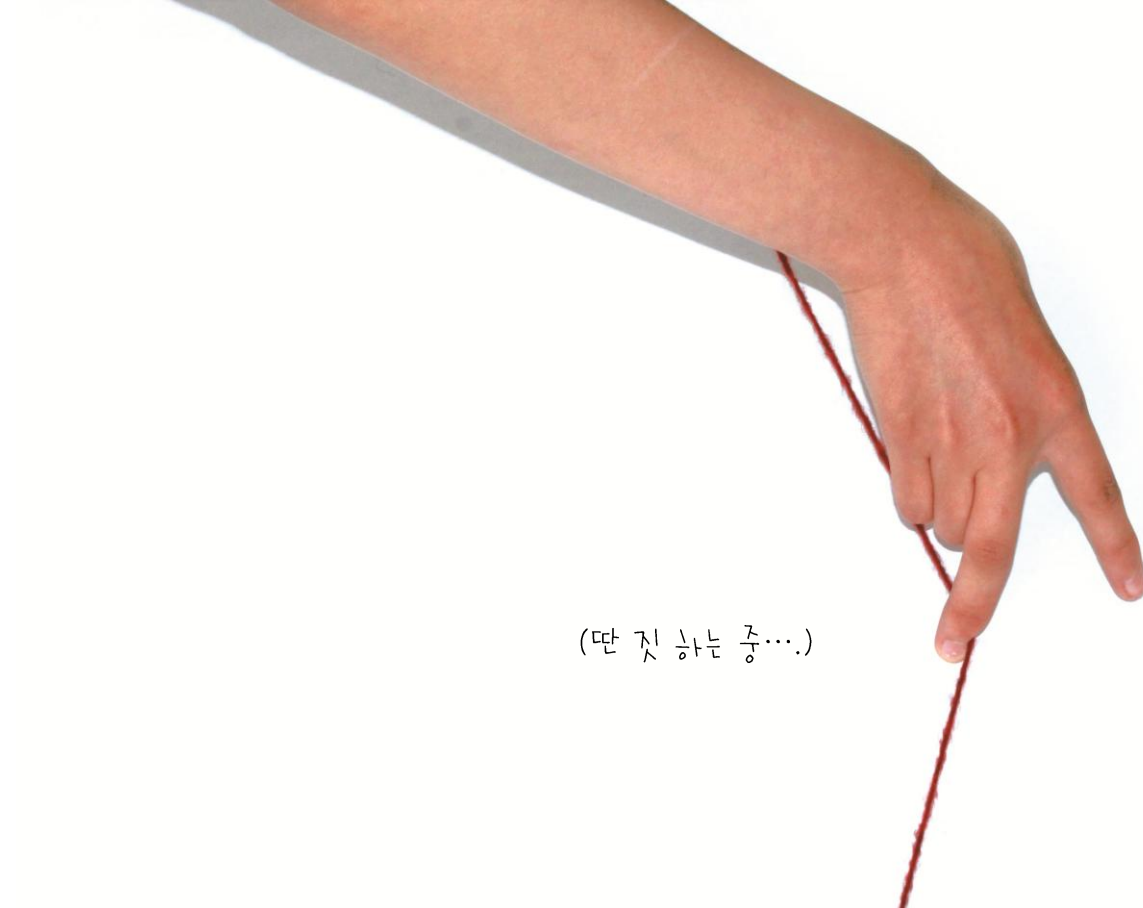


A red braided string is laid out on a white background, forming a large loop. The string has a textured, fibrous appearance. In the center of the loop, there is handwritten Korean text in black ink.

(공부(?) 하는 중...)

A photograph showing two human arms and hands from the left side of the frame. Both hands are extended towards a vertical red line that runs down the center of the image. The top hand is positioned higher than the bottom hand. The background is plain white.

2교시가 시작됐다.
점점 내 손이 땀 짓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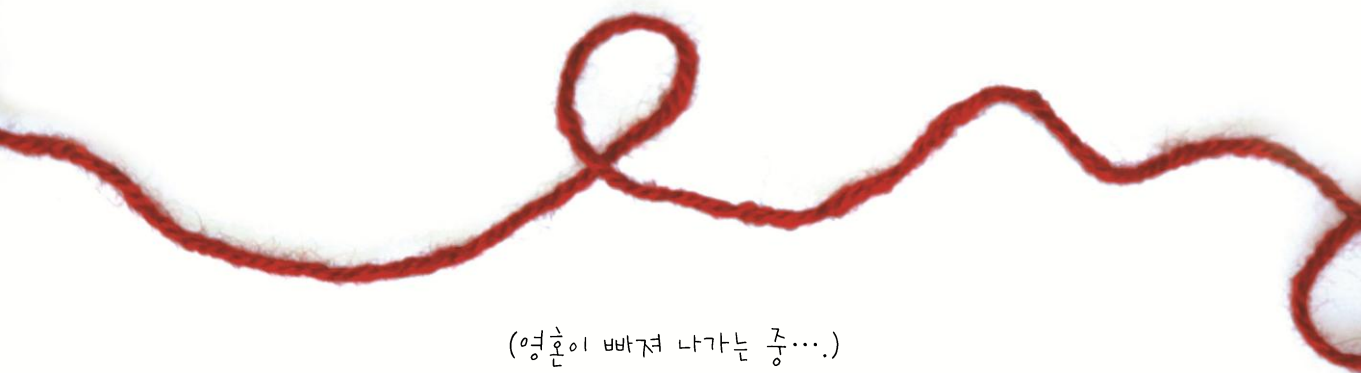


(땀 짓하는 중...)



↑ 내영혼

3교시가 시작됐다. 점점 영혼이 빠져나갔다.



(영훈이 빠져 나가는 중...)



급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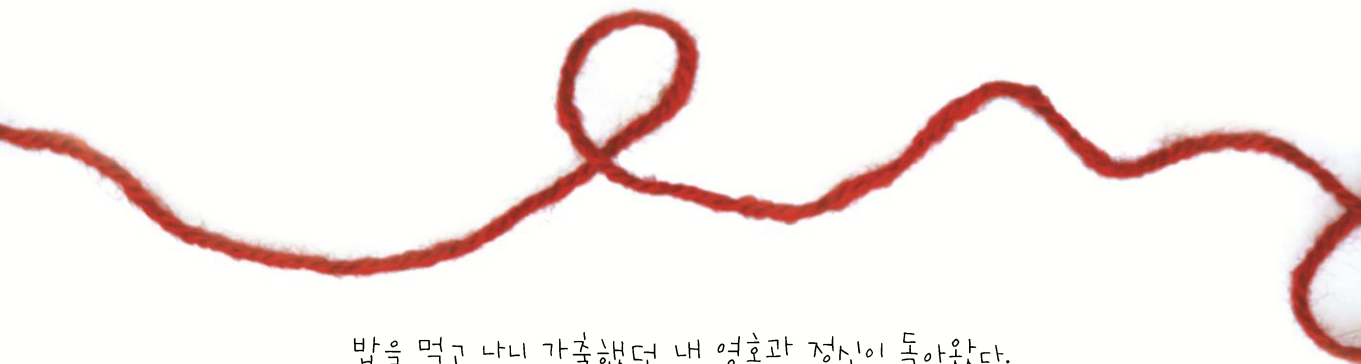
4교시가 시작됐다.

4교시가 되니 밥을 먹고 싶다는 생각에
공부에 집중이 안 된다.

Three clenched fists are positioned around a central sign. One fist is at the top, one at the bottom left, and one at the bottom right. The sign is a hand-drawn rectangle containing the Korean characters '금식' (fasting).

금식

(밥 먹는 생각 중...)



밥을 먹고 나니 가출했던 내 영혼과 정신이 돌아왔다.

(영혼과 정신이 돌아오는 중...)



5교시가 되자
집에 갈 수 있다는 희망이 지반함꼐다.





← 짓밟힌 내 희망

6교시가 되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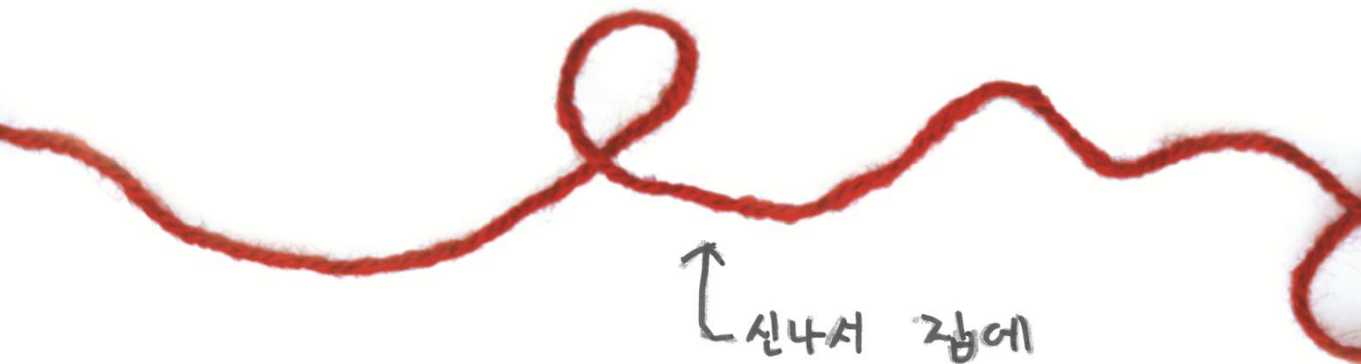
집에 갈 수 있다는 희망이 다시 생긴다.



(희망이 멎지는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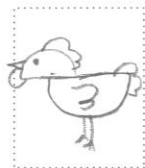
6교시가 끝났다.
"아, 이제 집에 갈 수 있다."



↑ 신나서 잠에
가는 나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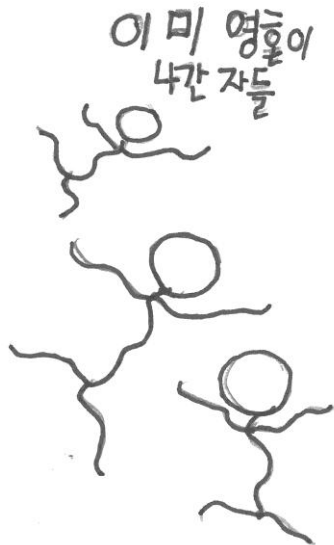
권동우 작가님께

안녕하세요. 권동우 작가님!
저는 5-2 김동휘라고 합니다.
저에게 가장와다운 장만은
4교시 옆어요. 저도 4교시가
되면 배가 고파서 집중이 잘
되지 않거든요. 이런 주제를
저는 생각도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생각해서 쓸수있는 점
부럽습니다.



김동휘 올림(?)

3교시



Philosophy

[통로, 스며 흐르다]

1. 흘러가다

교육미술관 통로는 내가 담아낼 수 있는 것보다 더 풍요로운 아름다움을 흘러보내는 연결통로(헨리나우웬, 2011)가 되고자 합니다.

2. 스며들다

교육미술관 통로를 통해 흘러가는 선한 영향력이
아이들의 마음에 시와 그림이 되어 스며들기를 소망합니다.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목록(CIP)
1교시부터 6교시까지 [전자자료] / 지은이: 권동우

서울 : 교육미술관통로, 2019

전자책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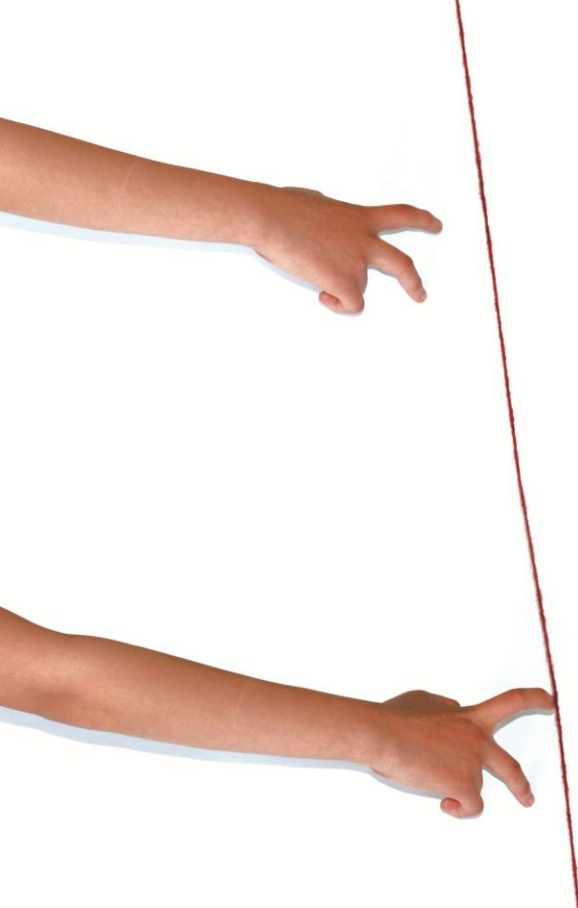
ISBN 979-11-89671-66-2 75810 : 비매품

창작 그림책[創作--冊]

813.8-KDC6

CIP2017007088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목록 (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r>)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CIP제어번호 CIP2017007088)



비매품



ISBN 979-11-957446-8-8 (PDF)
ISBN 979-11-957446-5-7 (세트)